

영암군, 친환경 인증면적 776ha 도내 1위 달성

남주농협·영암농협 589ha 추가
지역경제 활성화·환경보호 양립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목표
“전국 최고 친환경 농업지역 조성”

영암군의 친환경 저탄소 인증면적이 전남도내 1위를 달성했다. 군은 지역 농업인과 함께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가 양립하는 미래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28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달 2개소 589ha의 새로운 친환경 저탄소 인증면적을 추가로 확보했다.

전남 1659ha의 약 47%에 해당하는 776.8ha 인증면적을 확보했다.

이번에 새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유기농 벼 생산단지에는 남주농협의 227농가 416ha, 서영암농협의 112농가 173ha다.

민선 8기 영암군은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왔다.

농업 분야에서는 생산과정 탄소 배출 줄이기, 지속가능 농업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친환경 저탄소 농업 확산에 나섰고 이번 인증면적 확대도 전남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영암군은 지역 농업인과 함께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가 양립하는 미래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가 벼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영암군의 친환경 저탄소 인증면적이 전남도내 1위를 기록했다.

영암군 제공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성과는 영암군이 꾸준히 친환경 저탄소 인증면적을 늘린 노력의 결과다. 전남 최고의 친환경 농업 지역에서 전국 최고의 친환경 농업

지역으로 나아가겠다. 전국에서 영암군 농특산품을 생각할 때, 건강과 친환경 저탄소를 함께 떠올리도록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영암=한교진 기자

해남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1월22일까지 수시 접수

해남군 농업기술센터는 영농시 발생하는 각종 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영농부산물을 수거하고 안전하게 파쇄해 다시 퇴비화하는 자원순환은 물론 산불 방지와 미세먼지·병해충 발생을 줄이는데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1~4월 실시된 상반기 사업에서는 총 36농가, 26.1ha·315.8톤의 영농부산물을 처리했다. 영농부산물 종류로는 단감 나무 전정 가지 등 과수류가 96%로 가장 많았으며, 고춧대, 깻대 등 고추 유지류, 잡곡류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사업은 9~11월 실시할 예정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061-531-3875) 또는 읍면사무소에 11월 22일까지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7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 영농부산물 수거·처리하기에 불편한 취약계층과 산림연접지(100m이내) 내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맞춤 컨설팅 신안군, 지역 관광자원 연계

신안군은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의 홍보와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남도음식거리 명품화 사업은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거리 조성 및 그 지역이 가진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의 고유 음식과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번 맞춤형 컨설팅 내용으로는 △전문가가 찾아가는 맞춤형 지원 △위생·친절 교육 △메뉴 개발 △위생 물품 지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행방식은 업소별 현장 방문을 통해 문제점에 대한 사전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신안의 명품 남도음식거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신안의 맛과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신안군 맛잇섬영농조합법인 직원들이 쿠키를 만들고 있다. 신안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가공교육장에서 쿠키 기술 전수 교육을 시행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 지역 특화 쿠키 기술 전수 교육

신안군이 지역 특색과 상품의 다양성 발굴을 위해 지난 23일 농산물가공센터 위탁운영체인 맛잇섬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쿠키

기술 전수 교육을 추진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교육은 시금치와 함초, 비트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한 신안군의 상징 로고를 담고, 지

역 특색을 입힌 쿠키 5종을 개발, 기술을 전수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요즘 카페에 가면 다양한 디저트가 많다”며 “다양한 기술 전수교육 추진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완도군, 공감·소통 청렴 주간 운영... 청렴 문화 확산

부패 행위 모의신고 훈련 등

완도군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공감·소통 청렴 주간’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감·소통 청렴 주간’은 세대, 직렬 등 구분 없이 청렴에 대한 생각을 공유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부패 시책 제강 등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청렴 실천 서약을 시작으로 군수와 함께하는 청렴 즉문즉답, 부패 행위 모의 신고 훈련, 청렴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청렴 주간 첫째 날인 19일에는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대내외적으로 완도군 공직자의 청렴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자 군수, 부군수 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청



완도군 관계자들이 청렴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공감·소통 청렴 주간’을 운영했다.

완도군 제공

렴 실천 서약식을 가졌다.

둘째 날에는 청년센터 ‘완생’에서 군수와 직원들 간에 청렴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고 조직문화 개선과 공정성, 소통이라는 주제로 2시간에 걸쳐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군수는 업무 개선과 관련된 건의는 즉각 수용해 개선하기로 해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22일에는 부패행위 모의 신고를 실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김세국 전남도 감사관을 초청해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군민에게 신뢰받는 완도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청렴 실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청년 외식업 창업 아카데미 운영 영암군, 경영 컨설팅·메뉴개발 등

영암군이 지난 23일부터 ‘청년 외식업 창업 아카데미’에 돌입했다.

28일 영암군에 따르면 청년 외식업 예비창업자의 성공 창업을 위한 이번 아카데미는, 영암읍에 창업할 음식점 대표 3명이 참여한 가운데 총 18회 진행된다.

여기서 예비창업자들은 경영 컨설팅에서부터 브랜딩, 기본 조리 교육, 신메뉴 개발 등 음식점 현장에서 필요한 종합 창업 교육을 받는다.

창업 예정 음식점 3곳은 식육식당 ‘장산리’, 파스타점 ‘촌스토랑’, 김밥집 ‘우아한 김밥’이다.

이들은 영암군민과 관광객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격으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서호면의 토마토, 삼호읍의 무화과, 신북면의 한우 등 신선한 영암군 농·특산품을 재료로 개발한 파스타, 샐러드, 육회, 물회 등을 식탁에 올릴 계획이다.

우아한 김밥은 이달 영암읍 매일시장에, 장산리 푸줏간과 촌스토랑은 10월에 문을 연다.

김영중 영암군 관광스포츠과장은 “창업 아카데미를 지속해 영암의 맛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만드는 등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예방 총력 신안군, 현장위주 행정지도 실시

신안군은 염전근로자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해 팀장급 공무원을 주축으로 월 1회 이상 현장위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 749개소의 염전 중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 70개소이다.

전담공무원은 해당 염전사업장을 직접 찾아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언·폭행, 감금 등의 인권침해 사항 여부, 장애여부, 근로계약서 작성·구비 및 임금지급 사항 등 소금산업 진흥법 및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7~8월 여름철 불볕더위 등에 따른 근로자 열열 질환 예방을 위해 기온상승 시간대에 근로를 자제하고 열음료 비치 등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안군은 매월 행정지도를 통해 염전사업장 내에서 고용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범죄 의심 등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고발 조치 계획이며 결과에 따라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보조금 지원배제 및 한수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근로자 1대1 전담공무원제가 염전종사자들의 인권 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매월 수시로 이뤄지는 현장 위주 점검을 통해 단 1건의 근로자 인권침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은 경찰, 고용노동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회적약자 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회의 개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염전근로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안정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신안=홍일갑 기자